



노세영(서울신대)

1. 들어가면서

1) 레위기 18-20장 연구에 대한 기본적 이해

레위기 18-20장에 관한 연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됐다. 이 장들 안에는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살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들이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장들이 소위 성결법전(레 17-26)¹⁾의 전승사 및 편집사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2학기 및 2020학년도 1학기 서울신학대학교 연구년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1 A. Klostermann은 처음으로 레 17-26장을 성결법전이라고 명명하였다: "Beiträge zur Entstehungsgeschichte des Pentateuch", *ZLThK* 38 (1877), 401-445, 채홍식, "성결법전(레 17-26)의 형성에 관한 고찰: 레 19:3-18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8 (2000), 59에서 재인용.

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근친상간²⁾, 동성애³⁾, 우상숭배 및 19장에 나타난 법률과 기록의 의미에 대한 문제들⁴⁾ 등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18-20장이 성결법전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데 관심을 둔다. 예를 들면, 채홍식은 성결법전의 형성에 관한 연구사를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레위기 19장 3-18절 안에서 나타나는 불일치성에 근거하여 편집자가 십계명(출 20:15-17), 계약법전(출 23:1-3, 6-8) 및 원신명기(신명기 12-26장)를 원자료로 사용하였지만, 편집 당시의 독자들을 위하여 본문을 편집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⁵⁾ 이런 종류의 연구들은 레위기 18-20장이 성결법전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점과 18-20장을 성결법전이라는 문맥적인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전승사적 내지는 양식사적 측면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본문과의 관계성, 즉 오경이나 에스겔 등

2 Stephen F. Bigger, "The Family Laws of Leviticus 18 in their Setting", *Journal Biblical Literature(JBL)* 98 (1979), 187-203; Calum M. Carmichael, *Law, Legend, and Incest in the Bible: Leviticus 18-20*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왕대일, "레위기 18장의 가족법 재고", 「구약논단」 11 (2001), 27-48; Doug C. Mohrmann, "Making Sense of Sex: A Study of Leviticus 18", *Journal for the Study of Old Testament(JSOT)* 29 (2004), 57-79; 이은애, "레위기 18장의 성관계 조항들", 「구약논단」 19 (2005), 53-72; 조미형, "레 18장과 고대 서아시아 법전이 성 금령 비교 연구: 혈족과 인척 안에서의 성행위에 대한 금령", 「구약논단」 15 (2009), 167-191; Eve Levavi Feinstein, *Sexual Pollution in the Hebrew Bibl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100-131.

3 Jerome T. Walsh, "Leviticus 18:22 and 20:13: Who is Doing What to Whom?", *JBL* 120 (2001), 201-209; 강규성, "구약은 동성애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과 신학」 81 (2017), 83-108; Michael A. Grisanti, "Homosexuality-An Abominations or Purely Irrelevant?: Evaluating LGBT Claims in Light of the Old Testament (Gen 18-19; Lev 18:22; 20:13)", *The Master's Seminary Journal* 28/2 (2017), 115-133.

4 Calum M. Carmichael, "Laws of Leviticus 19", *Harvard Theological Review* 18/3 (1994), 239-256; Jacob Milgrom, "Law and Narrative and the Exegesis of Leviticus XIX 19", *Vetus Testamentum(VT)* 46 (1996), 544-548; David Tabb Stewart, "Leviticus 19 as Mini-Torah", Roy E. Gane and Ada Taggar-Dohen(eds.), *Current Issues in Priestly and Related Literature: The Legacy of Jacob Milgrom and Beyond* SBL 82 (Atlanta: SBL Press, 2015), 299-323 (이하 *Current Issues in Priestly and Related Literature*); Esias E. Meyer, "The Reinterpretation of the Decalogue in Leviticus 19 and the Centrality of the Cult", *Scandinavian Journal of the Old Testament* 30/2 (2016), 198-214; Hendrik L. Bosman, "Loving the Neighbour and the Resident Alien in Leviticus 19 as Ethical Redefinition of Holiness", *Old Testament Essays* 31/3 (2018), 571-590.

각주 1)-3)에는 위의 주제와 관련된 많은 글 중에서 일부분만을 소개하였다.

5 채홍식, *릿글*, 74-75. 국내 학자의 또 다른 글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하라: 김선중, "성결법전의 계약신학", *Canon & Culture* 8 (2014), 195-222, 18-20장의 문제에 대하여는 특별히 212-214를 보라.

에 나타나는 전승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 또한, 이 연구들에 기초하여 대부분의 레위기 주석서들은 최근까지도 레위기 1-16장과 17-27장을 구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으며 특별히 성결법전으로서의 17-26장을 독립적으로 이해하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18-20장을 성결법전이라는 틀 속에서 이해하는 것은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일까? 레위기 18-20장을 전체 레위기서 안에서 이해할 수는 없을까? 레위기를 하나의 통일성 있는 주제로 읽을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20세기 말에서부터 레위기 연구에 공시적인 방법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18-20장을 단순히 성결법전이라는 범주 안에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정경적 입장에서 해석하거나 레위기 혹은 시내 산 계약 전승(출 19:1-민 10:10)이라는 보다 큰 문맥에서 이해하게 되었다.⁶ 본 소고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18-20장을 레위기의 마지막 형태의 본문에 근거하여 레위기의 문학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18-20장이 가진 레위기서 안에서의 문학적 위치가 무엇이며 그 문학적 위치가 갖는 신학적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방법론적 전제

문학 구조를 분석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글에 흐르고 있는 통일성 있는 주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있다. 본 소고에서는 레위기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부정으로부터 보호하여 거룩에 이르게 함에 있다는 주제 아래 제의적 거룩과 윤리적 거룩이라는 두 개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거룩을 제의적 거룩과 윤리적 거룩으로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코데이(A. Cothey)는 일반적으로 윤리적이란 개인의 잘못과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는 이런 형태의 현대적 의미의 윤리적 거룩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룩의 두 측면은 통합되어 사용

된다고 주장하였다.⁷ 반면에 오토(R. Otto)는 고대 사회에서의 거룩은 일부 윤리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립적 개념으로 시작하였다가 후에 윤리적 개념으로 발전하였다고 이해하였고⁸ 엘리아데(M. Eliade)는 고대 사회에서의 거룩은 기본적으로 제의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말한다.⁹ 다른 한편, 더글라스(Mary Douglas)는 레위기의 음식법조차도 단순히 어떤 혐오스러움 때문이 아니라 폭력적인 약탈을 금지하고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희생자들을 존중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하면서 제의적 거룩조차도 윤리적 거룩을 완성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¹⁰ 라이트(David P. Wright)는 부정을 허락된 부정과 금지된 부정이라는 두 개념으로 나누면서 허락된 부정은 정결 예식이나 희생 제사 등을 통하여 정결하게 될 수 있지만 금지된 부정은 더 강력하여 성소를 부정하게 하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 더 긴 시간이 필요한 부정으로 우상숭배, 잘못된 성적 행위, 살인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았다.¹¹ 곧 금지된 부정을 윤리적 개념으로 이해한 것으로 여겨진다. 클라완스(Jonathan Klawans)는 구약에 나타난 부정과 관련하여 제의와 윤리의 개념을 더 명확하게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제의적 부정은 죄로 불리지 않지만, 윤리적 부정은 치명적인 죄(grave sin)의 결과이며 제의적 부정은 전염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화 예식을 통하여 정결하게 될 수 있지만, 윤리적 부정은 전염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정화 예식을 통하여 고쳐지지 않으며 보다 긴 기간의 형벌, 속죄 등을 통하여 정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¹² 그러나 클라완스의 견해처럼 제의적 부정과 윤리적 부정이 분

6 이윤경은 그녀의 글에서 비평학적인 성서학에서 구조주의, 수사학적 방법 등의 공시적 방법으로서의 변화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구약성서와 인문학: 역사, 문학, 철학으로 읽는 구약성서」, 『구약논단』 65 (2017), 140-171.

7 A. Cothey, "Ethics and Holiness in the Theology of Leviticus", *JSOT* 30 (2005), 148-151. 노세영은 그의 글에서 코데이의 거룩에 대한 이해를 비평하면서 레위기에서도 제의적 거룩과 함께 윤리적 거룩도 존재한다고 보았다: 노세영, "레위기의 제의적 및 윤리적 거룩", 『구약논단』 38 (2010), 10-32.

8 R. Otto, *The Idea of the Holy: An Inquiry into the Non Rational Factor in the Idea of the Divine and its Relation to the Rational*, trans. John W. Harvey (New York: A Galaxy Book, 1958), 6.

9 M. Eliade, *The Sacred and the Profane: The Nature of the Profane*, trans. Willard R. Trask (New York: The Harvest Book, 1959).

10 Mary Douglas, "The Forbidden Animals in Leviticus", *JSOT* 59 (1993), 22.

11 David P. Wright, "Unclean and Clean (OT)", *Anchor Bible Dictionary* vol. 6 (1992), 729-730.

12 Jonathan Klawans, *Impurity and Sin in Ancient Juda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26.

명하게 구별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면, 윤리적 부정이 희생 제사를 통하여 해결될 수 없다는 견해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¹³ 어쨌든 본 소고에서는 제의와 윤리라는 두 개념의 관계성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견해가 더 적절한지를 논의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학자가 레위기에 나타난 거룩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제의적 거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그중 일부 학자들은 레위기 안에 윤리적 개념이 있다고 이해한다는 점이다. 특별히 레위기에서 제의적 및 윤리적 거룩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학자들의 견해에서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제의적”이란 제도적 체계를 갖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윤리적”이란 사람의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이런 이해가 옳다면, 일반적으로 학자들에 의하여 이해되고 있는 견해를 따라 적어도 레위기에서 있어서 “제의적”인 것은 장소, 시간, 신분의 분리를 통한 거룩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적 체계에 근거한 것으로, “윤리적”인 것은, 비록 그것이 현대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내 산 계약 전승에 따른 하나님 및 이웃과의 관계에 기초한 사람의 행위와 그 행위에 따른 책임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문학 구조를 분석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다른 사항은 본문 안에 나타나는 문학적 단위에 나타난 주제의 평행, 용어나 개념 등의 반복이다.¹⁴ 왜냐하면 더글라스(Mary Douglas)가 말했듯이 한번 나타난 주제가 다음에는 나타날 때는 앞의 주제를 보충하여 설명하거나 더 발전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앞의 주제를

13 밀그롬도 클라완스의 제의적 부정은 자연적이며 죄성이 아니며 영구적이 아닌 것이라고 정의한 것에 대하여 레 12-15장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레 4:1-5:13 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비평한다: Jacob Milgrom, "Systemic Differences in the Priestly Corpus: A Response to Johanthan Klawans", *Revue Biblique* 112 (2005), 327.

14 Mary Douglas, "Poetic Structure in Leviticus", in David P. Wright, David Noel Freedman and Avi Hurvitz(eds.), *Pomegranates and Golden Bells: Studies in Biblical, Jewish, and Near Eastern Ritual, Law, and Literature in Honor of Jacob Milgrom*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1995), 245-247; Christopher R. Smith, "The Literary Structure of Leviticus", *JSOT* 70 (1996), 17-18.

반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⁵ 이러한 문학적 분석은 지금의 독자가 어떻게 레위기를 읽는가와도 관련이 있다. 곧 독자는 과거에 본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관한 관심보다는 마지막 형태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연구사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0세기 말에 들어서면서부터 레위기를 통일성 있는 한 권의 책으로 읽고자 하는 흐름이 생겨났다. 이런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레위기를 문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가운데는 각각의 문학적 단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여 그 문학 구조를 다룬 워닝(Wilfried Warning)¹⁶과 이야기체(narrative)로 구조를 나누는 스미스(Christopher R. Smith),¹⁷ 그리고 시간에 대한 표현을 근거로 문학 구조를 제시한 루웨(Andreas Ruwe)¹⁸와 같은 학자들이 있지만, 이들은 레위기의 구조와 레위기 18-20장과의 관계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연구사에서는 공시적 혹은 정경적 방법으로 레위기 구조를 제시하면서 18-20장이 그 문학 구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제시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레위기서 전체의 문학 구조를 통하여 18-20장을 이해한 대표적인 학자는 더글라스이다. 더글라스는 레위기는 “하나님의 집의 거룩성을 보호하기 위

15 Mary Douglas, *윗글* (1995), 247.

16 Wilfried Warning, *Literary Artistry in Leviticus*, Biblical Interpretation Series 35 (Leiden: Brill, 1999).

17 Christopher R. Smith, *윗글*, 17-32.

18 Andreas Ruwe, "The Structure of the Book of Leviticus in the Narrative Outline of the Priestly Sinai Story (Exod 19:1-Num 10:10)", in Rold Rendtorff and Robert A. Kugler(eds.) *The Book of Leviticus: Composition and Reception*, VTSupp 93 (Leiden/Boston: Brill, 2003) (이하 *The Book of Leviticus: Composition and Reception* 라고 함), 55-78.

한 방법”이라는 주제 아래 통일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⁹ 그녀는 레위기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단어나 주제가 반복하여 나타난다는 점에 근거하여 문학 구조를 하나의 링(ring)으로 이해하였다. 그녀는 19장을 첫 번째 전환점(turning point)으로 26장을 두 번째 전환점으로 제시하면서 두 개의 전환점들은 의로움(righteousness)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1-25장은 19장을 중심으로 두 개의 평행하는 단계들이 나타난다고 보았다.²⁰ 이어서 더글라스는 레위기에서 19장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19장이 말하는 ‘의로움(righteousness)’은 레위기의 중심 사상일 뿐만 아니라 ‘정결(purity)’이 ‘정의’ 혹은 ‘의로움’과 동등한 것이라면 ‘부정(impurity)’은 ‘불의’의 개념과 관련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²¹ 이러한 더글라스의 문학 구조 분석을 통하여 19장이 그 구조에 있어서 레위기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며 학자들에게 문학 구조에 관심을 끌게 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밀그롬도 더글라스의 문학 구조에 대하여 수용하여 레위기가 통일성 있는 책이라고 보면서도 여전히 이러한 통일성은 성결법전의 저자가 성결법전을 포함한 제사장 문헌(P)의 마지막 편집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²²

월튼 (John H. Walton)은 레위기 1-23장에서는 하나님의 평형(divine equilibrium)이 나타나고 24-27장에는 이스라엘 사회의 평형이 나타난다고 제시하면서²³ 하나님의 평형 부분에 속해 있는 18장과 20장은 잘못된 성행위 등을 중심으로 혐오스러운 행위를, 19장은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

는 행위들을 다룸으로써 이런 죄들이 발생하는 경우 하나님의 평형이 깨어진다고 주장하였다.²⁴ 이러한 월튼의 주장은 레위기를 통시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해할 가능성을 제시하였지만 18-20장을 단순히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를 열거한 것으로 이해한 것은 18-20장이 가진 윤리적이고 신학적 의미를 간과한 것이다. 김진명은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나타난 ‘땅이 토해낸다’라는 의미를 정경적 방법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구약에 나타나는 유사 본문들(왕하 17:7-18; 겔 22:1-16; 속 7:8-14)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땅이 토해낸다’는 거주민의 추방과 죽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²⁵ 그렇지만 이 논문은 18장과 20장에 나타난 한 문구를 중심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전체 18-20장에 대한 정경적 이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클라인(Moshe Kline)은 더글라스의 견해를 좀 더 발전시키면서 또 다른 형태의 구조를 제시하였다.²⁶ 클라인은 레위기를 22개의 문단(unit)으로 구분하면서 그중에서 부정한 것에 대하여 다루는 세 개의 단위(13:1-46; 13:47-14:57; 15장)를 제외하고 19개의 문단은 가장 중심되는 문단인 19장을 중심으로 앞뒤에 아홉 개의 문단이 대칭을 이루고 있음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세 개의 불결을 다루는 문단은 이스라엘 사회를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진영에서부터 불결한 것들을 제거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⁷ 아울러 교차 대구법²⁸의 중앙에 있는 19장은 지성소에서도 계약의 법규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곧 법규 안에 십계명이 있듯이 19장에도 십계명의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다.²⁹ 클라인의

19 Mary Douglas, *릿글*, (1995), 247에서 그녀가 먼저 발표한 또 다른 글(*릿글*, 1993)에서 제시한 구조를 발전시켰다. 더글라스는 다른 글에서도 이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Leviticus as Liter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20 Mary Douglas, *릿글* (1995), 253-255.

21 *릿글*, 252.

22 Jacob Milgrom, “HR in Leviticus and Elsewhere in the Torah”, in *The Book of Leviticus: Composition and Reception*, 24-40, esp. 24-26. 레위기의 편집사적 문제와 시내 산 계약의 문맥에서의 레위기의 위치에 관한 또 다른 논의에 대하여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Baruch A. Levine, “Leviticus: Its Literary History and Location in Biblical Literature”, *The Book of Leviticus: Composition and Reception*, 11-23.

23 John H. Walton, “Equilibrium and the Sacred Compass: The Structure of Leviticus”,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11/2 (2001), 299.

24 *릿글*, 301.

25 김진명, “레위기 18장의 정경적 전개에 관한 주석적 연구: ‘땅이 토해낸다’는 표현의 의미해석”, *구약논단* 20 (2014), 96-121.

26 Moshe Kline, “Structure is Theology: The Composition of Leviticus”, in *Current Issues in Priestly and Related Literature*, 225-264.

27 *릿글*, 227-230, 254-255.

28 클라인의 교차 대구 구조는 *릿글*, 261쪽에 잘 나타나 있다.

29 *릿글*, 232, 238.

이러한 접근은 레위기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부정에 관한 내용들이 13-15장에 제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3-15장이 불결을 말하는 장들로 그가 제시한 세 개의 링 속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교차 대구법을 만들기 위한 임의적인 제안인 것처럼 보이며 11-15장이 가진 정과 부정의 규례에서 11-12장과 13-15장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라고 여겨진다.

3. 레위기의 문학 구조 분석

1) 문학 구조 분석

우리가 최소한 아는 대로 레위기는 시내 산 계약 전승의 문맥(출 19:1-민 10:10) 중심에 있으며³⁰ 특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구름이 성막을 덮고 야웨의 영광이 충만한 상황(출 40:34-38)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거두어 시내 광야를 떠나는 문맥(민 10:11) 사이에 위치한다.³¹ 이는 레위기의 모든 신학적 입지가 시내 산 계약 전승과 성소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 야웨와 맺은 계약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사회에 임재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레위기는 새롭게 세워지고 야웨의 영광이 임재한 성막에서 이루어질 희생 제사(레 1-7장)와 그 제사를 집례하게 될 제사장의 위임식 규례(8-10장)로 시작한다. 그렇지만 이 두 다른 내용의 문학적 단위가 모두 제의적 문맥이라는 점에서 볼 때 서로 다른 문학적 단위로 이해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1-9장은 전체적으로 희생 제사와 제사장의 위임 제사와 관련된 것으로 제의적 문

30 오경 혹은 시내 산 계약 전승 문맥 속의 레위기에 대하여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Graeme Auld, "Leviticus at the Heart of the Pentateuch?", in J. F. A. Sawyer(ed.) *Reading Leviticus: A Conversation with Mary Douglas*, JSOTSupp 227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40-51; idem, "Leviticus: After Exodus and Before Numbers", in *The Book of Leviticus: Composition and Reception*, 41-54.

31 Christopher R. Smith, *윳글*, 18-19.

맥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10장의 경우는 불순종으로 인한 윤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1-9장과 10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1-9장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사(1-7장)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장 위임 제사(8-9장)가 나타난다. 야웨께 드려지는 이 두 대상, 즉 희생 제물과 제사장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본문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제사장 전승에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표현한다(민 3:11-13). 아론과 그의 후손이 레위인이라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그들만이 성막에서 희생 제사를 지내게 되며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레 6:18, 26, 7:6-7)는 점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소유물 중에서도 가장 귀한 소유물임을 증명한다.

이 단락(1-9장)에서 관심을 가질 다른 부분은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레 4:20, 26, 31, 35; 5:10, 13, 18; 6:7) 성화 제사(속죄제)와 배상 제사(속건제)의 경우이다.³² 모든 희생 제사에 대한 규례가 분명하게 제의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는 하지만 성화 제사와 배상 제사의 경우에는 윤리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5:1, 4; 6:1-3³³). 5장 1절과 4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언을 하거나 맹세를 했지만 실패한 경우들이다. 잘못된 증언은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으며 지키지 못할 맹세 또한 약속을 어긴 죄가 된다(참조, 신 23: 22-23). 더 나아가서 올바른 증언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증언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똑같이 잘못된 증언을 하도록 조장하게 되는 것이며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맹세하여 감당하지 못한다면 사회에 해를 끼치

32 히브리어의 חַטָּאת(하타트)와 אֲשָׁם(아삼)의 번역에 대하여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노세영, "레위기에 나타난 중요한 제의적 용어의 우리말 번역에 대한 제언: 하타트, 아삼, 트누파 트루마", *성경원문연구* 36 (2015), 7-29. 본 소고에서도 이 견해에 따라 하타트를 성화 제사로 아삼을 배상 제사 번역하였다. 서신혜, 이선희는 아삼을 속건제로 번역한 시기, 즉 전근대시기(갑오개혁 이전의 조선시대까지)에 속건제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역사학 및 국문학적으로 논하였다: 서신혜, 이선희, "성경번역의 '속건제'의 전근대시기 함의 고찰: 레위기 5:14-6:7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75 (2020), 150-173.

33 우리말 성경 6:1-7은 마소라 본문의 5:20-26절에 속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말 성경 본문의 체계를 따른다.

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잘못된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공동체가 모두 오염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6장 1-3절에서 말하는 범죄는 세 가지로 표현된다. 첫째는 속이는 행위를 통하여 남의 물건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소유하는 행위이며 둘째는 남의 것을 **גַּזַל**(가잘/도둑질하다)하거나, **אֶשְׁקֹף**(아샤크/착취하다)하는 경우이다. 밀그룹은 이 두 단어가 강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아샤크'의 경우가 합법적으로 어떤 물건을 가지는 것이라면 '가잘'의 경우는 불법적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고 정의한다.³⁴ 그러나 두 단어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레위기 19장 13절에서는 품꾼의 품삯을 다음 날 아침까지 가지고 있어서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샤크'와 '가잘'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동의적 평행법을 보여주고 있다(참조, 신 24:14-15; 시 62:11). 세 번째 종류의 범죄는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후에 그 물건의 주인이 자신의 것임을 주장하며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여 자기 것으로 만든 행위이다. 위의 세 가지 경우들은 모두 남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혹은 비윤리적으로 소유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른 이들로부터 잘못된 소유에 대한 의혹을 받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제3계명을 어기는 행위이다(출 20:7; 신 5:11). 위의 논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1-9장은 분명 제의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본문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면 윤리적 거룩을 다루는 본문에서는 자신과 이웃의 소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룩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가져서도 안 되며 이웃의 소유를 비윤리적 방법으로 소유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따라

34 Jacob Milgrom, *Leviticus 1-16: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he Anchor Yale Bible 3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9, originally published 1991), 337.

서 이 문단(1-9장)은 레위기의 사회가 제의적인 기반 위에 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윤리적 범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윤리적 범죄는 이스라엘 사회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1-9장과 구조적으로 평행하는 문학적 단위는 25-27장이다. 25-27장은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문학적 단위로서의 통일성을 말하기에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지만 이 세 장이 가진 주제와 반복되어 나타나는 몇 가지 문구들은 이 장들이 서로 문학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26장에는 시내 산에서 야웨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문구로 시작하여 비슷한 문구로 마감함(25:1; 26:46)과 동시에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란 문구가 반복하여 나타난다(25:38, 42, 55; 26:13, 45). 25장의 안식년 규례에서는 땅이 안식년에 안식할 수 있음을 말한다 면 26장 34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땅으로부터 쫓겨났을 때 땅이 안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25-27장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와 관련된 내용이다. 25장에서는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23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42, 55절)이라는 하나님의 소유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타나며 이 두 개념은 희년의 중요한 신학적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 정의를 이루기 위한 윤리적 기초가 된다. 26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사건(13, 45절)과 시내 산 계약(46절)을 근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다(12절). 27장에는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린 서원 예물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혹은 집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가 소개되고 밭이 그 서원 예물의 경우(16-25절)에는 25장에 나오는 희년의 규례를 적용한다.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הֶלֶל**(헬렐/예물)은 무를 수가 없다.

따라서 25-27장은 문학적으로 서로가 연결되는 장들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주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윤리적 요구도 함께 나타난다. 25장 13-5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경제적인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규례를 소개한

다.³⁵ 이 규례는 희년과 관련된 것으로 희년이 되면 땅이나 가옥이나 이스라엘 동족은 본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해방하는 것이다. 이는 안식년이나 희년이 경제 정의와 깊이 관련이 있음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를 희년이 지나도록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려준다. 곧 25-27장에서 제의적 거룩을 다루는 문맥에서는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땅과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다면 윤리적 거룩을 다루는 문맥에서는 이웃의 소유를 영구히 빼어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 점에서 25-27장은 1-9장과 서로 연결된다. 두 단락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와 이웃의 소유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하나님의 소유라는 제의적 개념은 이웃의 소유에 대한 윤리적 기반을 제공한다.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은 거룩하다는 사상은 이스라엘이 왜 거룩해야 하는가에 대한 신학적 기초이며 더 나아가서 이웃과 올바른 윤리적 관계 또한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1-9장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의 소유 문제를 말하고 있다면 25-27장에서는 성막이 세워진(26:11)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현상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의 소유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0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향료에 담아 성소에 들어가다가 죽음에 이르는 사건과 그로 인해 제시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제의적 규례, 즉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10:10)에 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³⁶ 이 구절은 사실상 제의적 거룩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본문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10장에 나타난 윤리적 문제가 어떻게 제의적인 부정을 일으키는지에 대하여도 놓쳐서는 안 된다. 10장이 윤리적인 문맥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8-9장이 야웨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8:5, 34-35)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문학적 패턴(8:9, 13, 17, 21, 29, 36)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연결되

어 있다는 점을 먼저 인식하여야 한다. 명령과 순종으로 마무리한 제사장 위임식은 10장에 들어서서 “야웨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라는 문구(10:1)에서 알 수 있듯이 야웨의 명령을 불순종하였다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8-9장에서는 야웨의 규례에 순종함으로써 야웨의 불이 임재한 사건으로 종결하였다면(9:24) 10장에서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야웨의 불이 나타나 나답과 아비후를 죽인 사건으로 성소를 부정하게 만든 사건이 나타난 것이다(1-7절). 또한, 10장 12-20절에서는 다시 제사장들이 먹어야 할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는 야웨의 명령을 어기고 불살라 버린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 대한 모세의 책망과 아론의 논쟁이 나타난다. 물론 야웨의 명령은 제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제의적 명령을 불순종한 것에 대한 모세의 책망을 받은 두 아들에 대한 아론의 변론은 모세를 설득했고 마침내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되었다. 곧 10장은 제의적인 거룩을 지켜야 할 제사장들이 야웨의 명령을 어긴 사건으로 시작하여 명령을 어기지 않은 사건으로 마무리되며 이 두 사건의 중간(10:3-11)에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기 위한 제의적 규례들이 소개된다. 따라서 10장은 규례에 대한 불순종과 순종의 사건에 기초한 하나님과 제사장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0장과 대비되는 단락은 24장 10-23절이다. 24장을 앞뒤 문맥과 어떻게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24장은 거룩한 시간으로서의 절기를 말하고 있는 23장과 25장 사이에 삽입되어 23장과 25장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절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동시에 24장에 나타나는 두 개의 기사조차도 서로 거의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다.³⁷ 이 문제에 대하여 워닝(Wilfried Warning)은 24장 8절에 나타나는 ‘안식일’은 23장과 25-26장에 나타나는 ‘안식일’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므로 24

35 월튼은 25장을 시간적인 문제로 이해한다: John H. Walton, *유타*, 302.

36 Andreas Ruwe, *유타*, 75에서 10:8-11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론에게 말씀하신 부분이라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본문이라고 주장한다.

37 John E. Hartley, *Leviticus*, WBC vol. 4 (Dallas: Word Books, Publisher, 1992), 396; E. Gerstenberger, *Leviticu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 354. 이 견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다음의 글을 보라: Volker Wagner, “Zur Existenz des sogenannten ‘Heiligkeitsgesetzes’”, *ZAW* 86 (1974), 307-314.

장은 레위기에서 문학적으로 가장 적절한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³⁸ 한편 스미스(Christopher R. Smith)는 24장은 종교력을 이야기하는 23장과 25장 사이에서 매우 이질적이라고 이해한 바그너의 견해를 비평하면서 23장은 종교적인 축제를 말할 뿐만 아니라 “야웨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1-2절)로 시작하여 “모세는 이와 같이 야웨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44절)로 끝을 내는 하나의 완전한 문학적 단위이지만 24장 1-9절은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어서 23장에 나오는 규례에 속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야기체를 가진 24장 10-23절과는 구분하였다.³⁹ 이와 달리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있어서 밀그룹에 의하여 지지되고⁴⁰ 있는 더글라스는 24장 전체(하나님의 이름이 오염됨)를 하나의 링 구조 속에서 10장(성소가 오염됨)과 서로 대비되는 문학적 단위로 해석하였다.⁴¹ 그렇지만 더글라스의 이런 입장은 24장 1-9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이름이 오염되는 사건은 24장 10-23절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의적인 문맥과 윤리적 문맥으로 이해하여 1-9절과 10-23절을 서로 다른 문학적 단위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24장 10-23절에는 야웨의 이름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경우와 동해보상법이 나타난다.⁴² 이스라엘 사회에서 야웨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치명적인 범죄이며 윤리적 부정을 일으킨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결정적인 범죄이기 때문이다. 동해보상법 또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률 중의 하나이다. 만약에 죄인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 사회

는 서로 간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사회의 질서는 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해보상법은 이웃과 이웃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24장 10-23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이다(23절). 이 점에서 이 단락은 10장과 비교될 수 있다. 곧, 10장에서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이 되는 성막에서 일어난 제사장들의 불순종 사건으로 시작하여 순종의 사건으로 마무리되었다면 24장 10-23절에서도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일어난 불순종의 구체적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건으로 종결된 것이다.

이어서 레위기 11-15장은 음식법 (11장), 출산에 대한 규례(12장), 악성 피부병(13-14장) 및 유출병(15장)으로 인한 정과 부정의 규례를 다룬다. 이 규례들은 악성 피부병의 경우에서 윤리적 범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민 12장, 왕하 20:20-27)가 드물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실제로 모두 제의적인 문제들이다. 이 규례에서 소개되는 제의적 부정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피할 수 없는 것들이며 정화 예식을 통하여 정결하게 된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제의적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장 4절에서는 산모가 정결하게 되기 전에는 성물을 만질 수도 없으며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규정한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진영 밖으로 쫓겨나 살아야 하며 (13:46) 제사장에 의하여 악성 피부병이 나았다고 판단되면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만, 장막 밖에서 칠 일간 머루고 여덟째 날에 성막 문 앞에 와서 거룩하게 하는 희생 제사를 드린 후에야 그는 정결하게 된다고 규정한다(14:1-20). 이런 규정들은 이스라엘의 제의적 거룩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15장 31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제의적으로 부정해졌을 때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38 Wilfried Warning, *유태교*, 92-96, esp. 93-94.

39 Christopher R. Smith, *유태교*, 27-28.

40 Jacob Milgrom, *Leviticus 23-27: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by Jacob Milgrom*, The Anchor Yale Bible 3B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1), 2082.

41 Mary Douglas, “The Forbidden Animals in Leviticus”, 11.

42 노트는 24:10-23을 레위기 구조에서 중요하지 않은 본문이라고 말한다: Martin Noth, *Leviticus: A Commentary*,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7), 10.

있는 성막을 부정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이다.

11-15장의 제의적 거룩에 대한 규례와 대칭되는 문단은 24장 1-9절이다. 이 단락에서는 제사장들이 순결한 기쁨으로 항상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의 등잔 불을 매일 정리해야 하는 것과 안식일마다 성소 안의 상위에 진설해야 하는 진설병에 대한 규례를 소개한다. 이는 성소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례이다. 여기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성소에서의 등잔불을 켜기 위한 감람유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점(2절)과 성소에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두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며 영원한 언약”(8절)이라는 점이다. 성소 안에서의 제의적 행위는 제사장의 몫이지만 이 모든 제의적 행위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준비는 백성들의 몫이며 동시에 성소에서의 제의적 질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함입을 집작하게 한다. 11-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 안에서의 제의적 거룩을 통하여 성소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한 규례를 말한 것이라면 24장 1-9절은 성소의 질서는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함입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성소의 거룩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임을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레위기 16장은 일 년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시간인 속죄일에 가장 거룩한 사람인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서 온 이스라엘과 성막을 **קִפְּפוּ**(키페르/속죄하다 혹은 거룩하게 하다)⁴³하는 날에 대한 규례이다. 그렇지만 속죄일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살펴보면 단순히 제의적 문제로만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1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과 죄로 인하여 부정해진 지성소와 성소를 거룩하게 하며 20-22절과 30절에서는 개인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 속죄하는 사건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클라완스는 16장에 나오는 위의 본문들은 죄로 인해 성소가 부정해지는 경우이지만 치명적인 죄(grave sin)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윤리적인 부정이라고 이해하지는 않는다.⁴⁴ 그렇

43 여기에서는 키페르의 의미를 논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노세영, “죽이는 속죄제물에서 **קִפְּפוּ**(kipper) 의미의 연구: 제사장 신학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19 (2005), 31-52.

44 Jonathan Klawans, *윳골*, 30.

만 오직 치명적인 죄만을 윤리적인 부정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16장에 따르면 성소와 지성소까지도 부정하게 하는 죄나 불의는 윤리적 범죄와 관련이 있는 **פְּשָׁע**(페사)(16, 21절), **יִזְבֵּ**(아본)(21, 22절), **חֲטָאָה**(하타트)(21, 34절)⁴⁵ 등의 단어들 사용될 뿐만 아니라 제의적 부정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의적 부정을 깨끗하게 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성막이 오염될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함 중에서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레 15:31; 22:9). 따라서 이 경우 또한 개인적으로 지은 윤리적 범죄 뿐만 아니라 제의적 부정을 정화하지 않음으로 성소를 부정하게 만드는 윤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⁴⁶

레위기 23장은 16장과 대비되는 문단으로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규례를 소개한다. 이런 종교적인 절기들은 제의적인 내용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절기를 지키는 문제를 단순히 제의적인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사회에서 안식일과 절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수기 15장 32-36절에는 안식일에 나무하는 일을 하다가 돌에 맞아 사형을 당하는 사건이 나타난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제의적 부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심각한 윤리적 범죄임을 알려준다. 더욱이 23장 26-32절에는 16장에 나타난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 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다시 제시된다. 또한, 23장에 나오는 절기들은 토지 소산의 추수와 관련되어 있으며 추수 때에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밭 모퉁이와 이삭을 다 줍지 말라고 하는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22절). 이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항상 존재할 수 있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45 카버(Robin C. Cover)는 구약에서의 죄를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를 소개하면서 **חָטָא**(하타)는 계약 관계에서 자신의 주인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윤리적 실패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와 관련이 있으며 가장 심각한 죄라고 표현하며 **פָּשָׁע**(페사)는 반역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계약을 어김으로 파기되는 행위이며 **יִזְבֵּ**(아본)은 종교적 의미가 강한 단어로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범죄를 가르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Robin C. Cover, “Sin, Sinners(OT)”, *ABD* vol. 6 (New York: Doubleday, 1992), 32.

46 밀그롬은 속죄일은 의도적으로 지은 죄(brazen sin)로 인한 성소의 오염과 공동체의 파멸을 막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Jacob Milgrom, *Leviticus: A Book of Ritual and Ethics, A Continental Commentary*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4), 162.

기본적인 배려이다. 따라서 23장은 16장의 속죄일 본문과 대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의적인 절기 속에 윤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6장에서는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거룩한 시간에 한정되어 있지만 23장에서는 속죄일을 포함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거룩한 절기들을 소개함으로써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켜야 모든 거룩한 시간으로 확장됨과 동시에 거룩한 절기들에 지켜야 할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도 함께 나타난다.

다음으로 1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의 고기를 먹는 규례를 소개한다. 더글라스는 17장을 1-16장과 18-26장을 연결하는 고리로 이해하면서 레위기의 링 구조 안에서 보이는 대칭 구조에서는 제외한다.⁴⁷ 또한 게르스텐베르크(E. Gerstenberg)는 17장의 내용이 제의적인 규칙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이 18-26장 보다는 1-16장과 더 관련이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17장이 전체 성결법전의 서론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17장을 성결법전의 일부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16장과 함께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⁸ 그렇지만 17장을 사람이 먹는 음식에 대한 규례로 이해한다면 17장을 21-22장과 대비하여 읽을 수 있다. 17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축의 고기를 먹고자 할 때는 성막으로 가져와 먼저 희생 제물로 여호와께 드린 후 먹어야 한다는 것과 가축과 야생 동물의 고기를 피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하며 이 규정을 어길 때 끊어짐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선언한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며 피를 통하여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으므로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피를 쏟아 내고 먹어야 한다. 따라서 육체의 생명을 사람이 소유하거나 먹어서는 안 되며 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레위기 21-22장은 기본적으로 제사장을 비롯한 백성들의 음식에 관한 제의적 규례를 보여준다. 여기에는 제사장과 그의 가족의 음식에 관한 규례(21:1-22:16)와 일반 백성들이 소위 화목 제물을 드리는 규례와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는 방법(22:17-33)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에 대한 음식에 관한 규정은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는 성막을 속되게 하거나 부정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21:12, 23)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21:6; 22:32). 곧 음식에 관한 규정은 성소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말해준다. 동시에 이 두 장에서는 이 음식에 관한 규정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반복한다(21:8, 15, 23; 22:9, 32). 음식에 관한 규정은 이스라엘이 먹는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함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21-22장은 음식으로서의 고기를 먹는 규례를 말하는 17장과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7장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성막에 가져와서 드린 후 먹어야 할 규정을 말하는 것이라면 21-22장에서는 음식에 관한 규정이 더 확장되어 제시된다.

이제 레위기의 구조는 정점에 이른다. 18-20장은 잘못된 성행위와 몰래에게의 우상숭배를 금지하고 있는 18장과 20장이 하나님 및 이웃과 거룩한 관계를 위한 윤리적 규례를 말하는 19장을 둘러싸는 교차 대구법으로 되어 있다. 물론 18장과 20장이 그 주제에서는 대칭이 되지만 그 자세한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18장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20장에는 **חֵטְאֵי קַדְשֵׁי**(히트카디쉬템/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내지는 **קַדְשֵׁי**(카다쉬/거룩하다)란 용어가 나타난다(7-8, 26절). 18장의 규례는 거의 모두 "... 하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금지 규정으로 나타나며 그 규정을 어겼을 때 땅으로부터 토해 내침을 당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끊어짐의 형벌'을 받게 되지만 20장에서는 잘못된 성행위에 대하여는 "... 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형벌로 나타난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형태의 본문에서 19장을 중심으로 비슷한 내용의 범죄를 금지하는 두 개의 다른 본문이 반복하여 나타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곧 18-20장에 나오는 죄악들은 단순히 죄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까지도

47 Mary Douglas, "The Forbidden Animals in Leviticus", 11.

48 E. Gerstenberg, *읽을*, 211, 234.

더러워지고(טָמֵא/타메)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해 내치는 형벌⁴⁹을 받게 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8장에서는 "...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금지 규례로 나타나지만 19장 2절에서 출발하는 거룩에의 초대는 20장에서 더 발전하여 거룩에의 초대와 그 일을 어겼을 때 죽음에 이르는 형벌을 받게 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레위기 19장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3-8절),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9-18절) 및 여러 가지 종류의 규례들(19-36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19장의 모든 규례들은 모두 2b절에 나오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이 거룩함이니라"라는 표제어와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37절)라는 결론 안에 기록되어 있다. 비록 제의적 부정을 피하기 위한 규례(5-8절, 19절, 23-25절) 등이 있기는 하지만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윤리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인지를 말해주고 있다.⁵⁰

이제 우리는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근거로 레위기는 11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되며 다음과 같은 구조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윤리적 부정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죄에 대한 금지 규례 (F) (18-20장)	
사람의 음식으로서의 동물과 동물의 피에 대한 규례 (E) (제의적 규례: 17장)	하나님의 음식, 제사장의 음식 및 (E) 평민의 음식에 대한 규례 (제의적 규례: 21-22장)
속죄일(거룩한 시간)과 윤리적인 죄의 문제 (D) (16장)	(D) 절기(거룩한 시간)와 윤리적 죄의 문제 (23장)

49 김진명은 율골, 96-121에서 "땅이 백성들을 토해낸다"는 것은 "거주민의 추방과 죽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50 지면상 19장에 대한 신학적 논의들은 여기에서 다룰 수가 없다. 19장에 대하여는 다음의 소개되는 몇 가지 논문들을 참고하라: Calum M Carmichael, "Laws of Leviticus 19", 239-256; Mary Douglas, "Justice as the Cornerstone", *Interpretation* 53 (1999), 341-350; Melinda Thompson, "Reading Leviticus 19: Issues for Interpretation", *Restoration Quarterly* 57 (2015), 95-108; Hendrik L. Bosman, 율골, 571-590.

이스라엘 진영 속에서의 제의적 거룩성 (C) (11-15장)	(C) 성소의 제의적 거룩성 (24:1-9)
성소의 오염과 윤리적 범죄 (B) (10장)	(B) 야웨 이름의 오염과 윤리적 범죄 (24:10-23)
야웨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희생 제물 (A) (제의적 규례: 1-9장) 1-9장에 나타난 윤리적 부정의 문제 (5:1, 4; 6:1-3)	(A) 야웨께 속한 예물 (제의적 규례: 25-27장) 25-27장에 나타난 윤리적 부정의 문제 (25:13-55; 26:1-2)

2) 문학 구조에 대한 종합적 이해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레위기는 18-20장을 정점으로 1-17장과 21-27장에는 유사한 주제를 가진 10개의 단락들이 제의적인 측면과 윤리적인 측면이 교차되어 나타나며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 윤리적 측면은 제의적인 측면의 기반 위에 나타난다. 예를 들면, A와 A'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은 제의적인 규례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안에는 윤리적인 내용도 담겨있으며 B와 B'나 D와 D'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이는 레위기의 사회에서 제의적 문제와 윤리적 문제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며 이 두 개념이 서로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개념을 하나의 중립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거룩에 대한 두 개념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으며 한쪽이 실패할 경우 다른 쪽도 오염을 받아 이스라엘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구조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레위기의 사회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 이슈를 찾게 된다. 첫째는 18-20장을 중심으로 1-17장은 일반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면 21-27장은 1-17장에 있는 단락에 비해 좀 더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확대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1-17장에서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의 문제조차도 성막을 부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임(15:31)을 보여주고 있다면 21-27장에서는 성전에서의 제의적 질서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며 이스라엘과의 영원한 언약임(24:9)을 알려주며 18-20장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공동체

로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규례임을 선포한다. 둘째는 레위기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제의적 사회이며 성막은 그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이다. 모든 제의적 단락에서는 모두 **וְהָאֱלֹהִים**(오헬 모에드/회막)(1:1... 8:3, 4... 12:6; 14:11,...; 17:4,... 23:3) 혹은 **מִשְׁכָּן**(미쉬칸/성막)(8:10; 15:31; 17:4; 26:11)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이를 증명한다.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거룩한 제의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레위기가 출애굽기 25-40장에 나타난 성막 건축 이후 야웨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상황과 연속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제의적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음식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모든 제의적 단락에서는 제사장의 음식을 비롯하여 평민들의 음식 및 안식년 및 희년과 관련된 음식법이 반복하여 나타난다(6:14-7:34; 11:1-47; 17:1-16; 21:1-22:33; 24:5-9; 25:6-7, 20-22). 또한, 이러한 음식에 관한 규정들은 단순히 제의적인 거룩에 제한되지 않으며 피에 관한 규정에서는 생명의 귀중함이, 안식년이나 희년의 경우에는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나타남으로써 윤리적 거룩과도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4. 윤리적 거룩 문맥의 기능과 18-20장의 신학적 이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레위기는 제의적 거룩과 윤리적 거룩을 다루는 문맥이 교차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윤리적 거룩은 제의적 거룩의 기반 위에서 성취된다. 그렇다면 윤리적 거룩의 문맥은 레위기의 구조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으며 18-20장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문맥에 나타난 단어나 주제가 어떻게 18-20장에서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락 A(1-9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잘못된 맹세(5:1, 4; 6:2)와 이웃의 재산을 잘못된 방법으로 소유하는 것(6:1-3) 등으로 정리된다. 이는 19장 11-13절에서 다시 반복된다. 19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염시키

는 것(**חָלַל**/할랄)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잘못된 맹세가 가져오는 윤리적 부정의 심각성을 다루고 있으며 19장 11절과 13절에서는 이웃의 재산을 잘못된 방법으로 소유하는 것을 지적한다. 특히 6장 13절에서 사용된 **חָלַל**(가질/도둑질하다)과 **אָסַף**(아사크/착취하다)라는 단어는 19장 13절에서도 반복된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및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락 A'(25-27장)에 나타난 주제와 단어들도 단락 F(18-20장)에서 반복된다. 26장 1절에 있는 "**אַל תִּשָּׂא**(엘릴림/우상)을 만들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는 규례는 19장 4절에서도 "너희는 **אַל תִּשָּׂא**(엘릴림/우상)에게로 향하지 말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고 나타나고 18장 21절과 20장 2-5절에서는 몰렉 숭배 금지라는 우상숭배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나타난다. 26장 2절에 있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שָׁמַר**/야레) 나는 여호와이니라"라는 문구가 19장 30절에서도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שָׁמַר**/야레)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반복되며 19장 3절에서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고 선포한다. 25장 35-46절에서는 동족 중의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을 어떻게 구분하여 대하여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지만 19장 10절과 33-34절에서는 **אֲנִי**(아니/가난한 자)와 **גֵּר**(게르/거류민)를 구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고 규정함으로써 더 차원 높은 이웃 사랑을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규정에 대한 근거로 이스라엘도 이집트에서 거류민이었으며 동시에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있음을 반복하여 선포한다(19:34, 36; 25:38, 55; 26:45).

문맥 B(10장)와 B'(24:10-23)는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불순종으로 인한 성막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18장 21절에서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는 의식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염시키는 **חָלַל**(할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20장 3절에서는 몰렉에게 대한 같은 제

의적 행위에 대하여 성소를 더럽힐(טָמַא/타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까지도 오염시키는(חָלַל/할랄) 것이라고 선언한다. 따라서 18장과 20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게 오염시키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어 거룩한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19장 4절에서도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오염되는 것이 단순히 몰렉 숭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며 19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오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경우에도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포한다. 아울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19:2; 20:26)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혹은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반복함으로써(18:2, 4, 5, 6, 21, 30; 19:3, 4, 10, 12, 14, 16, 18, 25, 28, 30, 31, 32, 34, 36, 37; 20:7, 24)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신 분임을 강조한다. 또한, 19장 30절에서는 10장의 사건과 대비하여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שָׁמַר/야레)”고 규정함으로써 성막을 오염시킨 사건을 연상하게 한다. 이러한 반복된 단어와 주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는 항상 거룩한 상태로 있어야 함을 말해준다. 아울러 18-20장에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에 불순종한 단락 B와 B'와 관련하여 규례에 대한 순종을 반복하여 표현함으로써(18:4, 5, 26, 30; 19:19, 37; 20:8, 22) 하나님의 규례가 거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단락 D(16장)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성소가 오염되는 것과 백성들이 부정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주며 속죄일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 다시 성소와 백성들이 거룩한 상태로 회복하는 절차와 방법을 소개한다. 이는 ʾזָבַח(제사)(16, 21절), ʾאָבֵן(아본)(21, 22절), ʾחֲטָאִים(하타아트)(21, 34절) 등으로 표현되는 범죄는 성소를 오염시킬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18-20장에서도 이 단어들은 나타난다. ʾאָבֵן(아본)은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는 경우(19:8)

과 음란한 행위(20:17, 19)를 표현하는 죄의 경우에 사용되며 ʾחֲטָאִים(하타아트)도 비정상적인 성행위(19:22)를 표현한다. 이러한 범죄행위들은 성소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부정하게 만들 수 있음을 16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18-20장은 성소를 귀하게 여겨야 하며 백성들은 거룩함을 입어야 함을 강조한다. 단락 D'(23장)에서는 가장 거룩한 안식일인 속죄일을 비롯하여 안식일과 절기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노동을 금지하라고 규정한다. 아울러 밭 모퉁이의 것을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을 위하여 남겨두도록 규정한다(23:22). 19장에서도 안식을 지키라는 규정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으며(19:3, 30)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에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도록 명령하고 있다(19:10).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윤리적 거룩을 다루고 있는 문맥들은 18-20장에 나타난 윤리적 문제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18-20장에서는 사람들의 윤리적 범죄가 거룩한 장소인 성소와 거룩한 시간인 안식일을 비롯한 거룩한 절기들을 부정하게 오염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오염될 수 있음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경제 정의를 비롯한 사회 정의 실현을 통한 이웃과 올바른 관계가 이스라엘 사회를 거룩하게 할 수 있음도 반복한다. 이는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 및 윤리적으로 올바른 이웃과 관계가 이스라엘을 거룩한 사회로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문제임을 알려 준다. 문학 구조를 통해서 18-20장 이전과 이후에 소개되고 있는 윤리적 범죄들이 갖고 오는 부정과 오염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마침내 18-20장에서는 그 절정에 이르러 좀 더 구체적이고 정리된 법규로 나타나고 있음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법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19:2; 20:26), 이웃과 관계에서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으로(19:18, 34) 귀결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살펴되어야 할 문제는 이러한 법규를 지킴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20장 8절에 따르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말해준다. 곧 규례를

지키는 것만으로 거룩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선언한다. 또한, 20장 26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 중에서 구별하신 이유가 그의 백성 곧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함임을 말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야 할 근거를 말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한 이유이기도 하며 애굽과 다른 이웃 나라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이유이다. 곧 18-20장은 앞뒤 문맥에서 제시하고 있는 윤리적 거룩의 문제들을 다시 반복하여 보여줌으로써 레위기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요구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나가면서

지금까지 레위기의 구조를 통하여 18-20장이 갖는 중요성과 그 신학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레위기는 시내 산 계약 전승의 문맥 속에서도 성막 안에 임재하신 야웨의 영광(출 40:34-38)과 성막을 거두어 시내광야를 떠나는 상황(민 10:11)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레위기의 이러한 문학적 위치는 레위기가 기본적으로 시내 산 계약 전승 및 거룩한 성막 안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곧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성막이 그 중심이 되어 이스라엘 진영이 거룩한 상태를 유지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레위기는 이스라엘 사회가 거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례와 법도를 보여준다. 또한, 거룩에는 제의적 거룩과 윤리적 거룩으로 나타나고 레위기의 본문은 18-20장을 정점으로 10개의 제의적 거룩을 다루는 문단과 윤리적 거룩을 다루는 문단이 교차하여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 이해를 통하여 레위기가 말하는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찾는다. 첫째는 레위기 사회는 기본적으로 제의적 사회이며 성막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다는 점이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이며 성소가 오염되면 하나님의 부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파멸에 이를 수

도 있다. 몰렉 숭배와 같은 우상숭배나 규례에 대한 불순종은 성막을 부정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스라엘은 항상 거룩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의적으로 부정된 상태가 되더라도 반드시 정결 예식 등을 통하여 거룩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막이 거룩해야 한다는 말은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는 19장 30절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둘째로 이스라엘이 제의적으로 거룩해야 한다는 것에는 음식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점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제의적 문맥에서 빠짐없이 나타나고 있는 각종 음식에 대한 규례는 제사장과 평민들이 어떻게 희생 제물을 비롯하여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며 규정에 어긋나게 음식을 대하는 것은 제의적 부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셋째로 레위기의 사회가 제의적 사회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제의적 거룩을 넘어서 윤리적 거룩도 함께 이루어야 한다는 근거를 제공한다. 성막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상숭배를 해서는 안 되며 피가 육체의 생명이라거나 땅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법은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된다는 윤리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윤리적 거룩은 적어도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 및 이웃과 윤리적 관계로 이해된다.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는 우상숭배 금지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면, 이웃과 윤리적 관계는 경제 정의를 비롯한 사회 정의 실현과 올바른 성행위로 정리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윤리적 거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18-20장에서 반복하여 나타남으로써 제의적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도 윤리적 거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임을 말해준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18-20장이 강조하는 윤리적 거룩을 이루지 못함으로 멸망하는 사건을 경험한다. 에스겔 2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우상숭배(3-4절), 사회적 불의(7, 12, 27-29절), 안식일을 부정하게 함(8, 26절) 및 음행(9-11절) 등이 소개된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더럽혀질 뿐만 아니라(겔 22:3) 성소도 더럽혀지고(겔 8장) 하나님도 더럽혀져(겔 22:26) 하나님은 성소

를 떠나게 되어(겔 8:6)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하게 된다.⁵¹ 제의적 규례는 윤리적 거룩의 근거를 제시하고 윤리적 범죄는 제의적 부정까지 일으켜 거룩한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장애를 일으키며 더 나아가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만든다. 따라서 레위기의 중심에 있는 18-20장은 시내 산 계약 전승의 문맥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그들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규례이다.

6. 참고문헌

- 강규성, “구약은 동성애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과 신학」 81 (2017), 83-108.
- 김래용, “에스겔서의 메시지와 거룩”, 「구약논단」 69 (2018), 232-265.
- 김선중, “성결법전의 계약신학”, *Canon & Culture* 8 (2014), 195-222.
- 김진명, “레위기 18장의 정경적 전개에 관한 주석적 연구: ‘땅이 토해낸다’는 표현의 의미해석”, 「구약논단」 20 (2014), 96-121.
- 노세영, “죽이는 속죄제물에서 כִּפֶּר(kipper) 의미의 연구: 제사장 신학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19 (2005), 31-52.
- _____, “레위기의 제의적 및 윤리적 거룩”, 「구약논단」 38 (2010), 10-32.
- _____, “레위기에 나타난 중요한 제의적 용어의 우리말 번역에 대한 제안: 핫타트, 아삼, 트누파, 트루마”, 「성경원문연구」 36 (2015), 7-29.
- 서신혜, 이선희, “성경번역의 ‘속건제’의 전근대시기 함의 고찰: 레위기 5:14-6:7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75 (2020), 150-173.
- 왕대일, “레위기 18장의 가족법 제고”, 「구약논단」 11 (2001), 27-48.
- 이윤경, “구약성서와 인문학: 역사, 문학, 철학으로 읽는 구약성서”, 「구약논

51 에스겔의 메시지와 거룩과의 관계성 연구에 대하여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김래용, “에스겔서의 메시지와 거룩”, 「구약논단」 69 (2018), 232-265.

- 단」 65 (2017), 140-171.
- 이은애, “레위기 18장의 성관계 조항들”, 「구약논단」 19 (2005), 53-72.
- 조미형, “레 18장과 고대 서아시아 법전이 성 금령 비교 연구: 혈족과 인척 안에서의 성행위에 대한 금령”, 「구약논단」 15 (2009), 167-191.
- 채홍식, “성결법전(레 17-26)의 형성에 관한 고찰: 레 19:3-18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8 (2000), 59-82.
- Auld, Graeme, “Leviticus at the Heart of the Pentateuch?”, in J. F. A. Sawyer(ed.), *Reading Leviticus: A Conversation with Mary Douglas*, JSOTSupp 227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40-51.
- _____, “Leviticus: After Exodus and Before Numbers”, in Rolf Rendtorff and Robert A. Kugler(eds.), *The Book of Leviticus: Composition and Reception*, VTSupp 93 (Leiden/Boston: Brill, 2003), (이하 *The Book of Leviticus: Composition and Reception*), 41-54.
- Bigger, Stephen F., “The Family Laws of Leviticus 18 in their Setting”, *JBL* 98 (1979), 187-203.
- Bosman, Hendrik L., “Loving the Neighbour and the Resident Alien in Leviticus 19 as Ethical Redefinition of Holiness”, *Old Testament Essays* 31 (2018), 571-590.
- Carmichael, Calum M., “Laws of Leviticus 19”, *Harvard Theological Review* 87 (1994), 239-256.
- _____, *Law, Legend, and Incest in the Bible: Leviticus 18-20*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 Cothey, A., “Ethics and Holiness in the Theology of Leviticus”, *JSOT* 30 (2005), 131-151.
- Cover, Robin C., “Sin, Sinners(OT)”, *ABD* vol. 6 (New York: Doubleday, 1992), 31-40.
- Douglas, Mary, “The Forbidden Animals in Leviticus”, *JSOT* 59 (1993),

3-23.

- _____, "Poetic Structure in Leviticus," in David P. Wright, David Noel Freedman and Avi Hurvitz(eds.), *Pomegranates and Golden Bells: Studies in Biblical, Jewish, and Near Eastern Ritual, Law, and Literature in Honor of Jacob Milgrom*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1995), 239-256.
- _____, *Leviticus as Liter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_____, "Justice as the Cornerstone: An Interpretation of Leviticus 18-20", *Interpretation* 53 (1999), 341-350.
- Eliade, M., *The Sacred and the Profane: The Nature of the Profane*, trans. Willard R. Trask (New York: The Harvest Book, 1959).
- Feinstein, Eve Levavi, *Sexual Pollution in the Hebrew Bibl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Gerstenberger, E., *Leviticu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
- Grisanti, Michael A., "Homosexuality-An Abominations or Purely Irrelevant?: Evaluating LGBT Claims in Light of the Old Testament (Gen 18-19; Lev 18:22; 20:13)", *The Master's Seminary Journal* 28/2 (2017), 115-133.
- Hartley, John E., *Leviticus*, WBC vol. 4 (Dallas: Word Books, Publisher, 1992).
- Klawans, Jonathan, *Impurity and Sin in Ancient Juda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Kline, Moshe, "Structure is Theology: The Composition of Leviticus", in Roy E. Gane and Ada Taggar-Dohen(eds.), *Current Issues in Priestly and Related Literature: The Legacy of Jacob Milgrom and Beyond*, SBL 82 (Atlanta: SBL Press, 2015) (이하 *Current Issues in Priestly and*

Related Literature), 225-64.

- Levine, Baruch A., "Leviticus: Its Literary History and Location in Biblical Literature", in *The Book of Leviticus: Composition and Reception*, 11-23.
- Meyer, Esias E. "The Reinterpretation of the Decalogue in Leviticus 19 and the Centrality of the Cult", *Scandinavian Journal of the Old Testament* 30/2 (2016), 198-214.
- Milgrom, Jacob, *Leviticus 1-16: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he Anchor Yale Bible 3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9, originally published 1991).
- _____, "Law and Narrative and the Exegesis of Leviticus XIX 19", *VT* 46 (1996), 544-548.
- _____, *Leviticus 17-22: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by Jacob Milgrom*, The Anchor Yale Bibl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 _____, *Leviticus 23-27: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by Jacob Milgrom*, The Anchor Yale Bibl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1).
- _____, "HR in Leviticus and Elsewhere in the Torah", in *The Book of Leviticus: Composition and Reception*, 24-40.
- _____. *Leviticus: A Book of Ritual and Ethics, A Continental Commentary*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4).
- _____, "Systemic Differences in the Priestly Corpus: A Response to Jonathan Klawans", *Revue Biblique* 112 (2005), 321-329.
- Mohrmann, Doug C., "Making Sense of Sex: A Study of Leviticus 18", *JSOT* 29 (2004), 57-79.
- Noth, Martin, *Leviticus: A Commentary*, revised ed.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7).

- Otto, R., *The Idea of the Holy: An Inquiry into the Non Rational Factor in the Idea of the Divine and its Relation to the Rational*, trans. John W. Harvey (New York: A Galaxy Book, 1958).
- Ruwe, Andreas, "The Structure of the Book of Leviticus in the Narrative Outline of the Priestly Sinai Story (Exod 19:1-Num 10:10)", in *The Book of Leviticus: Composition and Reception*, 55-78.
- Smith, Christopher R., "The Literary Structure of Leviticus", *JOT* 70 (1996), 17-32.
- Stewart, David Tabb, "Leviticus 19 as Mini-Torah", in *Current Issues in Priestly and Related Literature*, 299-323.
- Thompson, Melinda, "Reading Leviticus 19: Issues for Interpretation", *Restoration Quarterly* 57 (2015), 95-108.
- Walsh, Jerome T., "Leviticus 18:22 and 20:13: Who is Doing What to Whom?", *JBL* 120 (2001), 201-209.
- Walton, John H., "Equilibrium and the Sacred Compass: The Structure of Leviticus",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11/2 (2001), 293-304.
- Warning, Wilfried, *Literary Artistry in Leviticus*, Biblical Interpretation Series 35 (Leiden: Brill, 1999).
- Wright, David P., "Unclean and Clean (OT)", *ABD* vol. 6 (1992), 729-741.

검색어

레위기 18-20장
제의적 거룩
윤리적 거룩
레위기의 구조
레위기의 통일성

A Study on the Literary and Theological Meaning of Leviticus 18-20: In Terms of the Literary Structure of Leviticus

Se Young Roh, Ph.D

Professor, Dept. of Old Testament Studies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literary and theological meaning of Leviticus 18-20 within the Book of Leviticus. For this purpose, a couple of presuppositions are necessary. First, Leviticus is a unified book under the themes of cultic holiness and ethical holiness. Second, the repetition of motifs, terms, and concepts, which appear in the literary units, will be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literary structure.

Leviticus consists of five literary units before and after its center (chaps. 18-20), and these units make a chiasmatic structure in terms of cultic and ethical contexts. The literary structure is as follows: A (1:1-9:24), sacrifices offered to Yahweh // A' (25:1-27:34), offerings belonging to Yahweh; B (10:1-20), pollution of the tabernacle and ethical crimes // B' (24:10-23), pollution of the name of Yahweh and ethical crimes; C (11:1-15:33), cultic holiness in the camp of Israel // C' (24:1-9), cultic holiness in the sanctuary; D

(16:1-34), the Day of Atonement and ethical crimes // D' (23:1-44), religious festivals and ethical crimes; E (17:1-16), regulations on animals for food and their blood // E' (21:1-22:33), regulations on food for Yahweh, priests, and laypersons; F (18:1-20:27), regulations on grave sins which result in ethical uncleanness.

The analysis of the literary structure of Leviticus reveals several theological meanings. First, the society envisioned in Leviticus is basically a cultic society centered on the tabernacle. The tabernacle is the place where the holy God is present, so it must always be kept holy. Second, dietary laws are emphasized for the sake of cultic holiness. In each cultic context, dietary laws are repeated. Third, the regulations for cultic holiness provide the basis for achieving ethical holiness. These ethical regulations result in the holy relations with God and the ethical relations with neighbors. Finally, the fact that Leviticus 18-20 i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structure of Leviticus, and that the regulations, which appear in the ethical context, are repeated there, shows that Leviticus 18-20 is literally and theologically located in the center of Leviticus. As a result, the ethical regulations in Leviticus 18-20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 which the Israelites must obey.

Keywords

Leviticus 18-20

cultic holiness

ethical holiness

the structure of Leviticus

the unity of Leviticus

■ 투고일: 2020년 6월 26일

■ 심사일: 2020년 7월 27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7월 28일